

ZUKOV의 시대 구분론

韓 基 榮

< 目 次 >

- | | |
|-------------------|-----------|
| 1. 서 언 | 4. 종합적 고찰 |
| 2. E.M.Zukov 의 이론 | 5. 결 론 |
| 3. Marxist 해석의 오류 | |

1 . 서 언

역사는 개별적인 사실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이며 또한 계속성이라고 할수 있겠다. William H. Dray 는 “역사”라는 어휘가 갖는 뜻을 한편으로는 어떤 현실의 경과 즉 事件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가의 연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¹⁾ 술한 시간의 흐름을 역사의 이해를 위한 편의상,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時代 區分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Paul Kirn에 의하면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로 나누는 역사 강좌의 구별은 독일에서 1900년 경에 비로소 실천에 옮겨졌다.”²⁾ 고 한다. 원래 고대 . 중세 . 근대로 나누는 3분법은 르네상스 휴머니스트(Renaissance Humanist)들의 역사관에 의하여 확립되어 이 3분법을 “역사 서술상 하나의 유행으로 이끈 사람은 제 2급에 속한 무명의 역사 교사 켈라리우스(Christian Cellarius: Christoph Keller)였다. 17세기 말 홀란드의 휴머니스트인 켈라리우스는 역사 교과서를 저술 하면서 오늘날의 3분법의 개념을 확립하였다.”³⁾ 17세기 이후의 3분법이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오고 있고 또한 위에서 살핀 것 처럼 대학에서의 구분된 강좌가 약 백년간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시대 구분의 필요성, 객관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기존의 국내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소련의 역사학자 E.M. Zukov의

1) William H. Dray, Philosophy of History, Prentice-Hall, Inc. 1964, P.1

2) Paul Kirn, Einführ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 Sammlung Göschen, 1972, S. 9.

3) 차하순, 역사의 의미, 홍성사, 1981, p.157.

시대 구분론을 소개 분석하며 아울러 Zukov가 기초로 하고 있는 마르크스 주의의 해석(Die marxistische Interpretation)을 살펴 종합적으로 고찰 하려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 라고 할 수 있겠다.

2. Zukov 의 이론

1974年 西獨 Köln의 Kiepenheur & Witsch 출판사가 신학문叢書의 역사 부문으로 내어 놓은 책 “*Universal Geschichte*”에 실린 소련 역사학자 E.M Zukov의 논문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아래의 글은 Zukov의 “Über die Periodisierung der Weltgeschichte (世界史의 시대 구분에 대하여)”의 요약이다.

세계사의 시대 구분 문제에 대하여서는 많은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오래 전 부터 주의를 기울여 왔다. 시대 구분은 그것의 내적인 정당성을 인식하고 따라서 학문적인 일반화(Eine Wissenschaftliche Verallgemeinerung)를 가능케 하는 역사적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사의 개념 규정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 세계사는 저급단계에서 고급단계에 이르는(vom Niederen zum Höheren) 인간사회의 점진적인 진보를 알리는 발전의 일반화된(결코 추상적이 아닌)개념이어야 하며, 전 인류가 걸어온 길을 이해 하는것이다. 따라서 세계사는 모든 민족의 역사이다.(Weltgeschichte ist Geschichte aller Völker) 세계사의 대상을 이렇게 규정할때 恣意的으로 선택한 인종, 문화사적인 영역 혹은 문명에만 제한 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古代는 물론 오늘날에도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잘 연구되어 있는 지역 이외에서도 수 많은 사람들이 생활해 왔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문명권 외에서 발전해온 저쪽 영역의 인류의 운명을 무시할 때 우리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 연구의 대상은 전민족의 역사인데 연구자 마음대로(nach dem Gutdünken) 종교사나 문명사를 세계사로서 제시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流星(地球)을 우주 만물의 中心(als Zentrum des Weltalls)으로 보는 狹은 우주관 처럼 비과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의 시대 구분의 기초는 인간 사회 발전의 보편적 정당성을 승인하는 것이다. 변증법적인 역사적 唯物論(Dialektischen und historischen Materialismus)의 확고한 토대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마르크스 주의의 역사학(Die marxistische Geschichts-wissenschaft)은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결정하는 요인을 물질적 생산이라고 하는데서 출발한다. 먹는것을 공급하고, 입는것, 잠자는 것을 해결하는 필요조건은 사실 어느 누군가가 만들어 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가정, 사회, 종족, 민족, 어느 국가든 어떠한 인간 사회에서든 절대적으로 통용이 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 주의 역사학은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비록 그 교체가, 우

리가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한결같이 차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커다란 발전의 시기를 구별한다. 사회적 생산의 규정된 발전단계에 일치하는 발전의 시기는 보편적,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이러한 생산의 발전 단계에 응하여, 지역적인 차이는 인정하나 1) 원시 사회(Die Urgesellschaft) 2) 노예제 사회(Die Sklavenhaltergesellschaft) 3) 봉건제 사회(Der Feudalismus) 4) 자본주의 사회(Der Kapitalismus) 5) 사회주의 사회(Der Sozialismus)의 5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1)의 원시 사회는 미숙한 생산력과 미개한 기술 조건 아래 특히 서서히 형성 발전되어 왔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예외없이 이 같은 사회 형성의 초기 단계를 거쳐 왔으나, 결코 한결같이 동시에 그리고 균일하게 형성 발전해 온것은 아니라 어떤 지역에선, 자연 조건이, 그사회에서 모든 생산물을 즉각 소모하지 않고 잉여물을 남길 수 있는 객관적 전체 조건을 다른 지역 보다 빨리 낳게 했다. 자연 조건의 다양성은 사회적인 생산의 발전을 빠르게도 작용했고 느리게도 작용했다. 수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계층의 分化를 가능케 한것이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초의 계급 사회이자 동시에 전인류 발전의 두번째 시기인 2)의 노예제 사회이다. 원시사회 내부의 경제적 성숙은 내적 모순을 낳았고 이 모순은 구질서의 해체와 붕괴를 통하여 노예제의 계급사회로 바뀌게 된 것이다. 노예제 사회 역시 그 성립은 한결 같질 않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역사가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광범위하고 오래된 형태는 소위 家父長的 奴隸制(die sogenannte patriarchalische Sklaverei)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예제 사회라고 하여 양계급 즉 노예 소유자와 노예라는 두개의 계급으로만 구성된 사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초의 이같은 대립하는 계층 이외에 노예 소유자의 관여에 대항하여 그들의 사회 조직을 주장했던 자유로운 토지 소유자(die freien Landbesitzer)가 상당수 나타난 것이다. 사회경제적 조직의 해체가 비록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점진적인 방법이 아니라 혁명적 방법 곧 보수 반동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과의 가차없는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원시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의 이행(移行)과 똑 같이 노예제 사회에서 3)에 해당하는 봉건제 사회로의 이행도 한결 같이 동일 하지는 않았다. 노예소유의 사회질서가 시대에 맞질 않고 생산적 노동을 통해서 비생산적인 노예노동의 해체를 위한 객관적 조건이 성숙 했을 때 비로소 봉건 사회의 성립이 가능 했던 것이다. 봉건 사회에 있어서의 생산력은 하나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고 농업과 수공업의 보다 넓은 발전의 전망이 보였다. 이 시기에 노예 노동에 비해 임금 노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산업 생산에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봉건 사회는 노예제 사회와 꼭 같이, 지역적 특성에 좌우되는 수많은 구체적 형태로서 특징지워 지는 것이다. 봉건 사회는 다음에 나타나는 4)에 해당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해체 되는 것이다.(Die Feudalgemeinschaft wurde durch die kapitalistische Gesellschaft abgelöst) 자본주의 사회는 봉건 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형성되고 성장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역시 한결같이 동시에 이뤄질수는 없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13c ~ 14c

사이 이태리 도시 국가에서 그 맹아를 찾을 수 있고 16 C 네덜란드의 혁명(Die niederländische Revolution)은 외부 통치에 대항한 전민족의 투쟁이었으나 말하자면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을 뜻하는 깊은 사회적 토대를 가지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가장 현저히 발전한 유럽의 여러 국가가 종국적 승리를 거두었다. 17 C 영국 시민 혁명을 거쳐 18C 프랑스 대혁명은 봉건 사회의 막을 내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승리의 막을 열었던 것이다. 엥겔스(1820 ~ 1895)는 봉건제도에 대항한 유럽적인 부르즈와지의 결정적 투쟁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16 C의 독일 농민 전쟁 둘째는 17 C 영국의 시민 혁명 셋째로 18 C의 프랑스 혁명이 그것이다. ————— 中 略 —————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력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 왔고 학문, 기술, 및 문화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단계는 동일한 원칙하에 세분되어 져야 할 것이다. ① 봉건제도에 대한 자본주의의 성공적 투쟁과 종국적 승리를 가져온 시기, ② 하나의 세계체제로 변질되어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과 더불어 조직적으로 결속된 자본주의가 완전히 지배하는 시기 ③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제국주의 단계(das imperialistische Stadium)로 넘어가는 수십년을 포괄하는 시기이다. 여기에서의 제국주의 단계란 세계 전쟁이 발발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5)의 사회주의 혁명의 선행 조건이 일어 난다는 뜻이다. 최초의 프로레타리아 혁명(Die erste proletarische Revolution)은 1871년 프랑스에서 일어 났으나 당시의 시민 사회는 모든 가능성을 다 할수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파리 코뮌(Die pariser kommune)은,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급사회가 사라져 가는 시대에 인류가 가까와 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당시에 보여 주었으므로, 아직도 세계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 발전의 가속화는 세계를 포괄하는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존속을 단축시켰으며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사회 자체내의 모순(경제적 선행요건과 사회적 선행요건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때문에 몰락하고 계획된 인간 행위의 결과로서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일어나는 단계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Zukov는 세계사의 시대 구분 문제에 관하여 소련의 역사학자들은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라고 끝을 맺고 있다.(Die sowjetischen Historiker würden eine Zusammenarbeit in dieser Richtung wärmstens begrüßen) 여기서 마르크스 주의의 역사 해석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3. Marxist 해석의 오류

Zukov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그의 이론은 Marx의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경제학 비판)와 “Das Kapital” (자본론)에 근거하고 있다. Berlin 1951, Seite 14의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의 <In grossen Umrissen können asiatische, antike feudale und modern bürgerliche Produktionsweisen als progressive Epochen der ökonomischen Gesellschaftsformation bezeichnet werden> “대체로 아세아적, 고대적, 봉건적 및 근대 시민 사회의 생산 양식은 경제적 사회 형성의 발전적 시기로서 표현 될수 있다.”고 하는 Marx의 글의 인용은 바로 Zukov의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Das kapital* 초판 서문의 “*De te fabula narratur, [über dich wird hier berichtet.]*”⁴⁾는 “독일의 발전과 영국의 발전의 관련성을 거부할지도 모르는 독일 독자들을 염두에 둔 Marx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⁵⁾Marxist의 자본주의 몰락은 경제적 선행요건과 사회적 선행요건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 할수 있으니 “Marx는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가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상품의 과잉 생산 즉 상품의 소화를 위한 세계 시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잉생산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혁명이 불가피 하다고 예측했다. 혁명의 경제적 선행요건은 그 대부분이 이러한 기본 전제에서 유래하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a. 주기적 위기 및 자본가의 이윤 하락 b. 자본의 집중 - 억압과 프롤레타리아화 C. 노동자의 빈곤화(Verelendung) 등으로 표현 할수 있다. 사회적 선행요건은 a. 혁명을 조장시키는 도시화 b. 노동자사이의 의사 소통 c. 노동자 계급의 정치 논쟁화 등이다. 이를 도표로 살피면 아래와 같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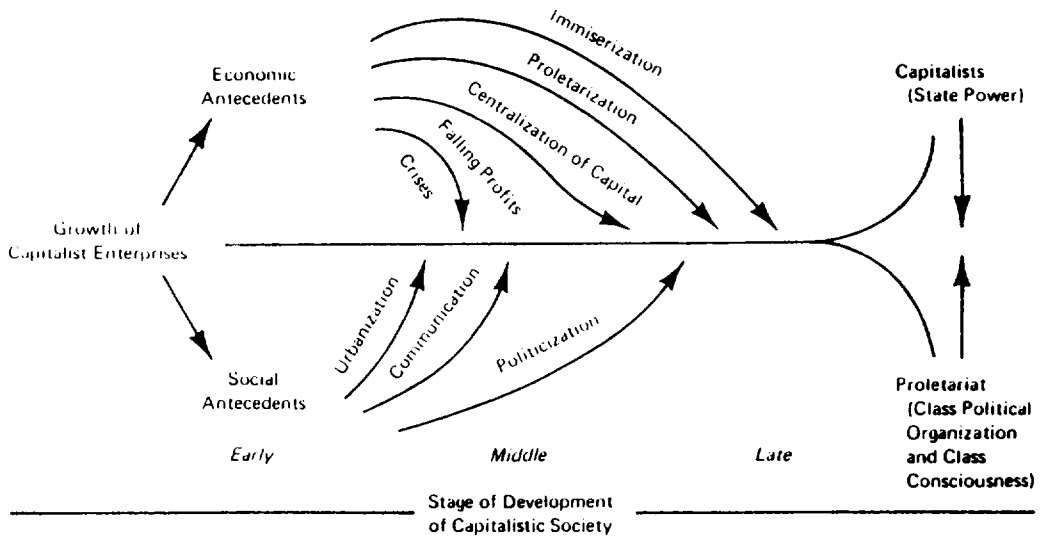


Figure 2-1 Economic and social antecedents of class conflict and revolution in capitalist society

- 4) Karl Marx, *Das Kapital*, Dietz Verlag Berlin, 1959, S. 6.
- 5) Anthony Giddens,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Hutchinson of London, 1978, P. 144.
- 6) Ra Chang-Joo, *Political Sociology*, The Publisher SaSeowon, 1983, P.P. 61-67

19 C의 人物 Marx는 20 C의 人物이 아니었다. “인간은 역사의 산물이지만 역사는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다.”⁷⁾ (Men are the product of history, but history is made by men) “훌륭한 지도자의 숭고한 사상과 결정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세계 역사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되어 왔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위인도 그속에서 그가 성장해온 보다 넓은 사회 환경에 본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看過할 수는 없다.”⁸⁾ “진보는 대체로 위인들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며 사실 종종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렇다라도 위인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것이며 그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이 주어져 있는 있는 사회의 기본 경향을 누구보다도 참되게 마음속에 그리고 있으며 또 그가 당시의 참된 시대 정신을 최고의 구현자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표현 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19세기 자본주의에 대한 Marx의 분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두가지 오류를 확인 할수 있다. “첫째의 오류는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그의 ‘추상적 모형’을 그가 살았던 당시의 실제사회에 연관 시키려고 했던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오류는 그의 계급이론과 관련 되어 있다. 비록 Marx는 (그러나 특히 Engels가 더욱 그러했다.) 미국에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지만, 자본주의의 과거 및 예기되는 미래에 대한 그의 논의의 대부분은 유럽의 세 국가-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서 얻은 자료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일정한 질서 속에서, 이들 세 국가의 철학적 전통은 그것으로부터 Marx가 역사적 유물론을 형성 했던 주요한 지적 근원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것은 고전적 독일 철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 및 영국의 경제학이다. (classical German philosophy, French socialist thought, and British political economy) 그러나 그가 자본주의 발달의 모형을 정립하려고 했던 보다 구체적 관찰의 측면에서 보면 영국의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 資本論은 영국과 관련된 자료-적어도 1850년 이후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Marx는 주로 영국사회에서 끌어낸 발전 이론의 맥락속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시도 했던 것이다. …… 만약 영국의 경험의 본보기로서 취급된다면, — 그리고 특히 이러한 본보기가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포괄적이고 경반대적인 대조로 일반화 된다면 — 프랑스와 독일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발전은 적절히 이해 될수 없다. Marx는 “전통사회”와 “근대사회”간의 대립보다는 봉건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 예로의 3단계의 진행을 상상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여러 이론가로 부터 이탈했다. 그러나 Marx의 문헌에도 “봉건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일반화된 反命題의 형태로서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2분적 대립이 나타난다. 이 봉건주의와 자본주의는 Marx 자신이 일어날것으로 보았던 주요한 역사적 구분을 이루고 있다. (That constitutes the

7) Edwin R.A. Seligman, *The Economic Interpretation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02, P. 101.

8) Ibid., P. 96.

9) Ibid., P. 98.

major historical division which he himself observed to have occurred.)…… 19세기 유럽에 대한 Marx의 해석을 일별(一瞥)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대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 경작지 혹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엘리트 집단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경우를, 살펴면서 Marx는 이들 엘리트 집단을, 자본주의의 출현에 의해 저항하지 못하고 일소된 후기 봉건 귀족의 유형으로서 혹은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의 일부분을 이루는 금리생활자의 형태로서 보았다. 그러나 영국에 있어서 조차 토지를 소유하는 귀족 엘리트는 Marx가 예견했던 것 보다 훨씬 오랫동안 강력한 경제적 특히 정치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에 있어서 Junkers (토지귀족)의 형태로서의 이들 엘리트는 20세기가 될 때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되었느냐를 음미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사회적 및 정치적 발전을 이해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금세기로의 전환 이후 독일을 확실히 “자본가 사회”(Capitalist Society)라는 명칭을 보장하고 있다:…… 19세기 후기 이후 Marx가 “임금노동자”라고 범주화 시키려 했던 직업구조의 대부분의 부문에서 실질수입은 모든 자본가 사회에서 실제로 증가해 왔다. 매우 중요한 이 사실은—— 만약 Marx의 “빈곤화 명제”(emiseration thesis)가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하나의 특수한 “예견”으로 고려된다면 그리고 만약 Marx의 경제 이론에 따라 자본주의의 초기의 생산적 부의 상대적 값을 증대시키려는 임금 노동자의 만성적 무능력(이것이 결정적인 것인바)을 인정한다면 —— 적어도 Marx의 견해에 관련해서 그 의미의 일부를 상실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적 권영은 Marx의 경제 이론과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적 위기 때문에 임금노동에서 생기는 수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생계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Marx의 견해의 제일의 기본 명제이다. 그러나 생계수준을 초과한 수입은 일어났고, 이 현상은 Marx가 허락하는 최소한의 예외조항의 측면에서, 혹은 가변적 문화적 정의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는 “생계”의 의미의 측면에서, 혹은 후기 Marx주의자들의 제국주의 이론의 측면에서도 설명되어서는 안된다. —— 中 略 —— 확실히 지난 100년에 걸쳐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실질 수입은 상당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과정은 상대적 임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기 보다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비슷한 정도로 상승되어 왔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재산 분배에 있어서의 명백한 정착이다. (Particularly important is the apparent fixity in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재산 소유권의 확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자본주의의 출현을 위해 제시되었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소수인의 손에 재산 소유권이 집중화(비록 집중화의 정도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된 것만큼 미국에서 결코 높지 않았지만) 되기 이전의 상태로 뚜렷이 되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몇년 사이에 —— 이러한 주장이 가장 빈번히 촉진되었던 미국에서조차 —— 명백하게 되었다 만약 19C 이후 자본가 사회가 그들의 상류층을 변동시켜 왔다면, 그 경우는 재산 자체의 분배를 변화시키는 측면보다는 주식회사의 성장의 결과로서의 경제적 통제를

위한 재산 소유권의 쇠퇴하는 특징의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취급되어야 했었다. — 의심할 바없이 Marx는 많은 부분에서 국가에 관한 자신의 부적절한 분석 때문에,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 간섭의 확대를 자극시킴으로써 자본주의가 발전적으로 성숙함에 따라 “자신의 전제를 부분적으로 잘라버리는” 상이한 유형의 자본주의가 생성될 것이라는 점을 Marx는 인식하지 못했다.”¹⁰⁾ Marxist의 오류는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을 받고 있으나 여기서 J.H.Hexter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글을 맺으려고 한다. “Marxist 이론의 오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문제는 사실상 Marx의 사회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정당성이 없는 억측에 달려 있다. Marx의 억측의 위험에 대해 서구 문명의 황금시대에 있어서의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가 단순히 적용될 수는 없다. 9세기로 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은 Marx가 기술한 것과 같지는 않았다. 참으로 Marx의 통찰력의 결실 — 경제계 바탕을 둔 사회 집단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감각, 사회집단의 내적 구조, 그들의 상호작용 및 갈등 — 은 보잘것 없이 좁고 편협한 역사 변화의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히 분쇄되어 왔다. 즉 전 Marxist의 조작은 불모의 현학(衡學)으로 퇴보 하였다. 결코 마르크스 주의자가 아닌 역사가들이 “Button button where is the bourgeoisie?”¹¹⁾라고 하는 따분한 경기에 합세 했다는 사실은 그 경기를 더 이상 품위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좀 덜 따분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글픈 不運으로 부터 무엇을 배울수 있는가? 첫째 어떠한 새로운 사회사의 구성도, 역사가들이 증거 보충을 부탁 받아야 할, 미리 짜여진 사회변화의 이론이 되어서는 안되며, 둘째,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할것인가를 좀더 알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자료를 취급함에 쉽게 늘이거나 부수거나 재구성 할수 있는 임시의 뼈대가 되어야 하며, 셋째로 역사의 우연성이라는 기본 원칙 위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집단을 택해야만 한다. 따라서 ① 봉건적 ② 브르조아의, ③ 프롤레타리아의 우물론적 신비로운 3자(① ② ③)의 계단 앞에서 신성하지 않은 경배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된다.”¹²⁾ 19세기 이후 자본주의는 자본가 사회와 국가 사회주의로 크게 양분되어 엄연히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4. 종합적 고찰

Zukov 자신도 Marxist 입장의 시대 구분 이론에 대한 몇몇 비판 예컨대 “오늘날 세계에는

10) Anthony Giddens,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Hutchinson of London, 1978, P.P. 143-152.

11) *Children's game*. (Here it means bourgeoisie.)

12) J. H. Hexter, *Reappraisals in History*,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1963, P. 16.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선 상이한 형태의 봉건제도, 노예제도 그리고 원시사회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역사 발전은 결코 도식적으로 한결같이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어 온 것은 아니다…… 모든 역사적 현상을 경제적 법칙의 자동적 작용을 통해 설명하거나 혹은 사회학적 도식에 교묘하게 짜 맞추려는 프로크라테스의 침대 (Ein Prokrustesbett)로 단순화 시키려고 한다.”¹³⁾ 고 하는 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마르크스주의의 대원칙 아래 세계사의 시대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설이라는 이론적 구성물을 역사적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특수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 까지나 현실의 인식에 있는 것이고 가설의 입증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¹⁴⁾ 시대 구분은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역사 이해의 편의상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이해의 便宜와 역사 서술의 便宜上 취해진 것이므로 역사가의 恣意가 아니라 보편 타당성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력—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개개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전인류도, 또한 문학, 예술, 관습, 시민공동체의 외적 형태와 같은 끊임 없이 발전하는 영향에 기인하는 정신적 산물조차도 — 은 서로 공통하는 성질, 발전, 법칙을 갖는다.(Alle lebendigen Kräfte, der Mensch wie die Pflanze, die Nationen wie das Individuum, das Menschengeschlecht wie die einzelnen Völker, ja selbst die Erzeugnisse des Geistes, so wie auf einem in einer gewissen Folge fortgesetzten Wirken beruhen, wie Literatur, Kunst, Sitten, die äussere Form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haben Beschaffenheiten, Entwicklungen Gesetze miteinander gemein.)”¹⁵⁾ 그러므로 독일 문학사의 경우

“Germanische Dichtung bis zur Mitte 8. Jahrhunderts, Die frühmittelhochdeutsche Literatur (800—1150), Höfisch-ritterliche Dichtung (1170—1250), Dichtung im bürgerlichen Mittelalter (1250—1500) Renaissance—Humanismus—Reformation 16. Jahrhundert, Das Zeitalter des Barock (1600—1720) Aufklärung—Rokoko—Sturm und Drang (1720—1785) Klassik (1786—1810) Romantik (1797—1830) Das neunzehnte Jahrhundert (Biedermeierzeit, Junges Deutschland und Politische Dichtung, Bürgerlicher Realismus, Naturalismus, Impressionismus) Das zwanzigste Jahrhundert (Symbolismus, Expressionismus, Die Weimarer Republik, Literatur im Exil und im Dritten Reich, Vo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bis

13) E. M. Zukov, Über die Periodisierung der Weltgeschichte in Universalgeschichte, Kiepenheuer & Witsch, Köln, 1974, S. 115.

14) 양병우, 시대와 시대구분, 역사학보 제 37 집, p.3.

15) Wilhelm von Humboldt, Über die Aufgabe des Geschichtsschreibers, in Kurt Rossmann's Deutsche Geschichtsphilosophie; Ausgewählte Texte von Lessing bis Jaspers,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GmbH & Co, KG. 1969. S. 206

zur Gegenwart)”¹⁶⁾의 설정이 정신사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역사 서술가가 해결해야 할 최후의 그러나 가장 순수한 과업은 현실 속의 존재를 획득하기 위한, Idee (理念)를 향한 노력의 서술이다.

(Das Geschäft des Geschichtsschreibers in seiner letzten, aber einfachsten Auflösung ist Darstellung des Strebens einer Idee, Dasein in der Wirklichkeit zu gewinnen.)”¹⁷⁾

멀리서 우리들 앞에 서서히 형태를 취하는 구름과도 같은 역사적 사실, E.H. Carr의 표현을 빌어 “사실의 큰 바다속에 자취도 없이 가라앉아 버릴 사실들”¹⁸⁾을 우리들의 관습 및 탐구를 통해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의 과정에서, 필요에서, 편의상 취해진 것이 시대 구분이라면 정신이든 문화든 뭐든 어디까지나 가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The Traditional Society, The preconditions for take-off. The Take-off. The Drive to Maturity, The Age of High mass—Consumption’을 제시한 Rostow의 가설도 있을수 있고 “모든 사회제도는 성장의 결과이며, 이러한 성장의 원인을 어떠한 정신이 아닌 물질적 존재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

(All Social institutions are the result of a growth, and that the causes of this growth are to be sought not in any idea, but in the conditions of material existence.)”¹⁹⁾

고 하는 역사의 경제적 해석도 하나의 가설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생산 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바꾸어 간다. 손 맷돌은 봉건 영주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증기 방앗간은 산업자본가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들의 물질적 생산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이룩해 가는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원리, 사상 및 범주를 만들어 간다. ……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사상과 범주들은 역사적이며 그리고 덧없는 변화 무상한 산물들인 것이다. …… 개인이 생산에 참여 함으로써 형성하는 사회관계 즉 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그리고 물질적 생산수단의 변화와 발전에 의하여 생산력은 또한 변화된다. 생산관계들이 집합적으로 우리가 사회라고 일컫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역사적 발전의 한 특정단계에 있는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다. …… 고대사회, 봉건사회, 부르즈와 사회는 생산관계들의 총체적 복합의 예로서 그 각각은 인류의 역사적 발전의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²⁰⁾

(With the change in the social relations by means of which individuals produce, that is, in the 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 and with the alt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terial means of production,

16) Grabert-Mulot-Nürnbergger,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Bayerischer Schulbuch-Verlag, 1982, S. 3ff.

17) Wilhelm von Humboldt, Ibid., S. 212.

18) E. H. Carr, What is History? Penguin Books, 1967 P. 15.

19) Edwin R. A. Seligman, The Economic Interpretation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02, P. 23.

20) Ibid., P.P. 39-40.

the powers of production are also transformed. The relations of production collectively form those social relations which we call society, and a society with definite degrees of historical development. ----- . Ancient society, Feudal society, Bourgeois society, are simply instances of this collective result of the complexes of relations of production, each of which marks an importance step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ankind.)

역사의 경제적 해석 이론을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수 있다. “전체로서의 진보에 대한 철학적 설명으로서의 이론의 타당성을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역사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든 것을 뒷받침할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경제적 원인을 탐구하는 것을 일반적인 철학태도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제사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강조되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아뭏든 이러한 방향에로의 많은 연구가 이 이론의 창시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먼저 Marx 자신이, 실제 적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의 진술 중에는 타당하지 못한 것도 있으며 그의 역사적 설명중에는 건강 부회적이거나 과장된 것도 있다; 그러나 주제에 대한 그의 공헌에는 상당한 기초가 깔려 있다. 그의 공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은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Marx는 주요 산업요인으로서의 17C의 산업자본의 발생과 18C의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역사적 발전을 설명했다. 지방시장에서 전국시장으로 그리고 다시 이로부터 세계시장으로 바뀌어 가는 부수적 변화와 더불어, 가내 수공업 체제의 본질과 그로부터 오늘날의 공장제공업체제로의 변화를 최초로 분명하게 지적한 사람은 Marx였다. 고대에는 자본이 결코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으며, 자본이 있다고 해도 산업자본이 아니라 상업자본이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고대와 현대의 경제생활의 본질적 차이에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역사의 많은 부분도 이러한 견지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Marx였다. 그리고 19C 중엽에 일어난 정치적 변동의 주된 힘이 경제적 힘이었다는 것을 최초로 파헤친 사람도 역시 Marx였다.”

“(For it is obvious that we may refuse to admit the validity of the theory as a philosophical explanation of progress as a whole, and yet be perfectly prepared to admit that in particular cases the economic factor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t is natural, however, that the economic influence in any given set of facts should be emphasized primarily by those whose general philosophical attitude would predispose them to search for economic causes. It will not surprise us, then, to find that much good work in this direction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originators of the theory and their followers. Marx himself made no mean contribution to the facts. Some of his statements are erroneous, and not a few of his historical explanations are farfetched and exaggerated; but there remains a considerable substratum of truth in his contributions to the subject.

Of these contributions the most familiar is the account of the transition from feudal to modern society,

due to the genesis in the seventeenth century of capital as a dominant industrial factor and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t was Marx who first clearly pointed out the nature of the domestic system and its transformation into the factory system of our age, with the attendant change from the local to the national market, and from this in turn to the world market. It was Marx, again, who called attention to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economic life of classic antiquity and that of modern times, showing that, while capital played by no means an insignificant role in ancient times, it was commercial and not industrial capital, and that much of Greek and Roman history is to be explained in the light of this fact. It was Marx, too, who first disclosed the economic forces which were chiefly responsible for the political changes of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²¹⁾

역사를 대하는 경제적 사관은 自由와 必然性에서 또한번 벽에 부딪힌다. “경제 사관은 첫째 자유의 이론을 무시하며 역사에 있어서의 위인들의 중요성을 간과한 운명론적 이론이다. 둘째 존재 여부조차 불확실한 “역사 법칙”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역사에 있어서의 윤리적 혹은 정신적 힘을 무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터무니 없는 과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First, that the theory of economic interpretation is a fatalistic theory, opposed to the doctrine of free will and overlooking the importance of great men in history; second, that it rests on the assumption of 'historical laws' the very existence of which is open to question; third, that it is socialistic; fourth, that it neglects the ethical and spiritual forces in history; fifth, that it leads to absurd exaggerations.)²²⁾

5. 결 론

시대 구분 문제에 대한 본격적 논쟁은 Karl Heussi의 “Das Problem der Periodisierung”에 대한 G.V. Below의 “über historische Periodisierungen”에서의 공박이다. 1921년의 Heussi의 글을 1925년에 Below가 공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시대 구분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역사의 본질은 아니므로, 이해의 편의상 그리고 서술의 편의상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대 구분의 객관성을 믿는 근거로서 계몽시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위대한 전환점의 존재 리든가 비교적 고정된 시간의 분명한 繼起를 들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Karl Heussi는 “Aber 1. die Einschätzung der Wichtigkeit der einzelnen ‘Zeitwenden’ und ihre Zusammenordnung zu Perioden lässt sich nicht einfach von dem ‘Gegenüber’ ablesen, sondern erfolgt unter Einsatz des standortgebundenen historischen Urteils, und 2. die Aufeinanderfolge der Zuständlichkeiten, z.B. der Phasen der Sprachgeschichte, vollzieht sich in so zahlreichen, gleitenden

21) Ibid., P.P. 68-69.

22) Ibid., P.P. 89-90.

Übergängen, dass auch hier die Periodisierung nicht einfach vom Objekt ablesbar ist. Auch darf man nicht eine dieser Zuständlichkeiten, z.B. die Sprachgeschichte, für die Periodisierung aller übrigen Reihen d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maßgebend sein lassen. Man unterschätzt denn doch die Kompliziertheit des Problems der Periodisierung, wenn man glaubt, mit dem einfachen Hinweise auf das Mittelhochdeutsch das „Vorhandensein“ des „Mittelalters“ erweisen zu Können.“

(1. 개개의 전환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시대에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단순히 “대치시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연결된 역사적 판단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다. 2. 상태성의 계기(繼起) 예컨대 언어사의 여러가지 변화의 계기는 수많은 유동하는 과정에 진행되어 왔으므로 여기서도 시대구분은 단순히 대상으로 부터 끌어 낼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태성의 하나 예컨대 언어사를, 모든 일련의 역사적 발전의 시대구분화를 위해, 간단히 생각 할 수 없다. 우리가 중세 고지 독일어를 간단히 참조함으로써 중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시대 구분 문제의 복잡성을 과소 평가하는 것이다.)²³⁾

프랑스 혁명과 같은 전환점으로서의 정치 변혁, 계몽사상과 같은 사상 중심, 사회구조 중심 문화사 중심 또는 앞에서 살펴 본 Zukov처럼 유물사관의 측면에서 본 가설도 가능할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일원적 파악이 시기 상조 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Marx의 견해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되었다는 것을 실제 확신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꽤 많이,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인간 진보의 약간의 중요한 요인(要因)으로, 역사가의 생각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Even though it may be conceded that this unitary conception is premature, and even if it is practically certain that Marx's own version of it is exaggerated, if not misleading, it is scarcely open to doubt that through it in large measure the ideas of historians were directed to some of the momentous factors in human progress which had hitherto escaped their attention.)²⁴⁾

아울러 “어느 특정한 시대에 외적 및 내적인 정치, 경제, 사회, 학문, 종교 그리고 모든 예술이 한결같이 일치하는 시대적 특징 — 가마도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또는 특정한 계몽주의 시대 등 —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연구하고 서술 함에 있어서 더욱 확고히 하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Wer glaubt, beweisen zu können, daß in einem bestimmten Zeitalter äußere und innere Politik, Wirtschaft und soziales Leben, Wissenschaft, Religion und alle Künste ein einheitliches Gepräge getragen haben — etwa ein individualistisches oder ein barockes oder ein von der Aufklärung bestimmtes — , der hat die Pflicht und selbstverständlich auch das Recht, dies in Untersuchung und Darstellung zu erhärten.)²⁵⁾

23) Karl heussi, Die krisis des Historismus, Verlag von J. C. B. Mohr, Tübingen, 1932, S. 86f.

24) Edwin R.A. Seligman, Ibid., P. 165.

25) Paul Kirn, Einführ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 Sammlung Göschen, 1972, S. 10f.

라고 하는 Paul Kirn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결론에 가름한다.

(위의 논문은 1983년 5월 28일 제 26회 전국 역사학 대회 서양사 부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약간 보완한 것임.)

— Summary —

Zukov's Periodization Theory

Han Kee Young

The economic interpretation of history is developed to the period making. Ancient society. Slave-holding society feudal society, capitalism, and socialism, are simply instances of the collective result of the complexes of relations of production, each of which marks an important step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ankind. Even though it may be conceded that this materialistic conception is premature, and even if it is practically certain that Marx's own version of it is exaggerated, if not misleading, it is scarcely open to doubt that through it in large measure the ideas of historians were directed to some of the momentous factors in human progress which had hitherto escaped their attention. Whether or not we are prepared to accept it as an adequate explanation of human progress in general, we must all recognize the beneficent influence that it has exerted in stimulating the thoughts of scholars and in broadening the concepts and the ideals of history and economics alike. Zukov's "Über die Periodisierung der Weltgeschichte" is a presupposition in periodization. Period making is necessary to the convenience of understanding history.